

호남대 극단 'HUT' 뮤지컬·연극 무대

여름 내내 준비했어요 가을 부르는 공연 3편

18~29일...어린이·청소년 무료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극단 'HUT'은 방학을 반납하고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작품을 준비했다. 단원들은 뮤지컬, 연극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학교 내 랩탈라 소극장에서 그 결과물을 선보인다.

호남대 광산캠퍼스 복지관 3층에 자리한 '호남대 랩탈라극장'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실습실로 사용했던 액티비티스튜디오를 지난해 3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150석 규모의 극장은 무대 외의 벽을 허물어 마당극 형태에서 프로시니엄, 아레나, 돌출 등 다양한 스타일로 무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극장이다.

'공연이 가을을 부른다'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모두 세 편이다.

18~19일 오후 2시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만나는 작품은 어린이 뮤지컬 '혹부리 아저씨와 B-boy 도깨비'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전래 동요를 오락과 교육이 함께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변형한 작품이다.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한국어 정서에 맞게 고친 '한 여름밤의 꿈'은 22일 오후 2시 공연된다. 극단 '여행자'의 양정웅씨가 각색해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등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네 남녀 사이의 얽히고 설친 사랑이야기와 도깨비들의 한 여름밤 장난질이 한국판 광대놀이로 표현된 연극이다.

29일 오후 2시 공연되는 뮤지컬 'To be or Not to Be'(29일 오후 2시)는 세익스피어의 대 표작 '햄릿'을 록 뮤지컬로 변형한 작품이다.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는 연극, 뮤지컬, 축제 등 공연과 영화영상미디어분야를 기획·제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 지난 8월 1일 장흥 정동진 물 축제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뮤지컬 갈라 페스티벌에 참가, 금상을 수상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력 작업으로 아르헨티나의 세계적 연출가 페르난도 루비오의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에도 참여했다.

티켓 가격 어린이, 청소년 무료, 일반은 1만 원. 문의 062-940-381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한 여름밤의 꿈'

신경숙 표절논란 두 달...출판 빅3 침묵을 깨다

창비·문학동네·문학과지성사, 가을 계간지에 문학권력 등 다뤄

창비,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 등 이른바 '문학 권력'으로 불린 3대 문학 출판사가 올해 계간지 가을호에서 일제히 표절과 문학권력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신경숙(사진) 소설가의 작품 표절 논란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이다.

신씨의 표절 논란이 처음 제기된 단편 '전설'이 실린 단행본 '갑자 먹는 사람들'을 펴낸 창비는 이번 주 후반 출간되는 계간 '창작과비평'에 내부 편집위원이 아닌 문학평론가 3명의 원고를 실을 예정이다. 평론가들은 원고에서 표절과 한국 문학권력 문제, 문학 비평의 역할 등을 다뤘다. 창비는 겨울호에는 내부 편집위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씨의 소설을 가장 많이 펴낸 문학동네는 계간지 '문학동네' 가을호에서 관련 문제를 특징으로 다룰 예정이다. 문학권력과 표절 문제를 다루는 좌담이 진행됐고 내·외부 평론가의 글도 실릴 예정이다.

하지만 문학권력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해 온 김명인·조영일 등 5명의 외부 평론가와 좌담은 논란 끝에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원고 청탁은 내부 편집위원과 외부 평론가에게 모두 이뤄졌으며 신씨 남편인 남진우 평론가의 기고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학과지성사는 지난 7일 '문학과사회' 가을호에 실을 기획 좌담을 열었다. 내부 편집위원인 김형중·강동호 문학평론가와 외부 평론가인 김영찬·소영현·황오덕 등 평론가 5명이 참여해 4시간 가량 좌담이 진행됐으며 현재 녹음을 풀고 있다. 이근혜 문학과지성사 편집장은 "좌담에서는 표절 논란을 계기로 제기된 표절, 문학권력, 문학 생산주체 등 한국 문학계에 얽힌 다양한 주제를 언급했으며 다음 주 초반에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목관 5중주 '뷔에르 앙상블' 광주 공연 20일 금호아트홀

젊은 목관 5중주팀 '뷔에르 앙상블'이 광주 공연을 갖는다. 2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지난해 열린 제3회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린 뷔에르 앙상블은 서울대 음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각종 국제 콩쿠르와 동아·중앙 음악 콩쿠르 등에서 수상한 연주자들이 모친 그룹이다.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은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부스 콰르텟과 트리오 제이드가 우승했던 콩쿠르다. '뷔에르'는 라틴어로 '진실된', '진짜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리더인 클라리넷 연주자 조성호를 중심으로 유지홍(플루트), 이범승(오보에·게스트), 이은호(바순), 주홍진(호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재원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레퍼토리는 불랑의 '목관 오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육중주', 투일레의 '목관 오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육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6'이다. 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을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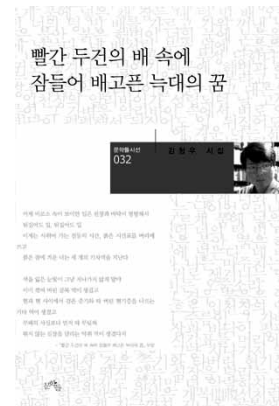
광주 출신 김청우 시인 시집 펴내

광주 출신 김청우 시인이 이색적인 제목의 시집을 펴냈다.

'빨간 두건의 배 속에 잠들어 배고픈 늑대의 꿈'(문학들)으로 명명된 시집은 다양한 시적 실험과 미학적 성취를 담아낸다. 휘발성의 이미지들이 폭우로 쏟아지는 시의 행간은 다소 낯설고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럼에도 익숙함과 관습적인 것을 배반하는 일이 시인의 고유의 길이라면, 김 시인의 '갈들여진 세계'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새롭고도 아름답다. 표제작 '빨간 두건의 배 속에 잠들어 배고픈 늑대의 꿈'에는 이러한 열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사진, 도형, 부호들이 텍스트를 가르거나 뒤흔들며 무수한 사물을 재배열한다. 이 과정에서 낯선 이미지들이 발현되고 새로운 의미망이 형성된다.

김동근 전남대 국문과 교수는 "김청우의 시 쓰기는 수 많은 기교와 해체의 비틀기로 시도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 결음이 짙어가는 발자국은 언제나 하나의 방향으로 굳게 찍혀 있다"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전남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2003년 '시현실'에 시가, 2011년 '시와 세계' 평론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유치부·초등생 내달 23일까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제 12회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9월 23일까지 독후감 응모를 받는 이번 행사는 만 6세 이상 유치부 어린이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응모 방법은 도서 제한 없이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 작성한 독후감을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블로그(blog.yes24.com/kidsreview/2015)에 등록하면 된다.

분량은 유치부 50자, 저학년 300자, 고학년 600자 이상으로, 여러 도서로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수상자는 10월 22일 예스24 홈페이지와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블로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1월 14일에 진행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문학예술 작품을 통한 인권 인문학' 강좌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세태 속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인권 인문학 강좌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최하는 '문학예술 작품을 통한 인권 인문학' 강좌가 지난 11일부터 매주 화요일(오후 7시) 광산구 월곡동에 자리한 광주민중의 집(영천아파트 단지 세진빌딩)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시인인 조진태(사진) 작가회의 회장이 강사로 나서 문화예술 작품을 매개로 공감과 배려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다. 매 주제를 시 낭송과 토론이 진행되며 마지막 강의는 발표회가 있을 계획이다. 각각의 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8일(국가폭력과 저항권) ▲25일(노동권) ▲9월 1일(자유권) ▲8일(환경권) ▲15일(문화권) ▲22일(평등권, 다문화 인권) ▲10월 6일(아동, 청소년인권) ▲13일(정보인권) ▲20일(연대권). 문의 062-523-783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투데이 옥션

부동산거래 추천물건

- 광주 동구 학동 근린건물 전대병원 맞은편 위치 병원,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추천 지하 2층 ~ 지상 5층 대지 456㎡ 건물 1779㎡ 감정가 23억2천 최저가 16억2천
-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동부서 인근 투자기초 최고 상가건물 사옥 학원 커피숍 편의점 추천 지하1층 ~ 지상 3층 대지 306㎡ 건물 400㎡ 감정가 7억 3천 최저가 7억 3천
-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사거리 코너 위치 지하1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 광주 서구 농성동 상가주택 KT 서광주 지사역 코너부 지하1층 ~ 지상 4층 대지 285㎡ 건물 871㎡ 감정가 5억7천 최저가 3억9천
- 광주 서구 금호동 상가주택 삼거리 코너 위치 지상1층 ~ 3층 대지 210㎡ 건물 369㎡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3억3천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던 근조화완3던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